

# 하락장에서 두자릿수 수익률...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주목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규모 1.8조 서비스 계약자수 43만8500명 국내증시 하락 대비 수익률 양호

에프앤가이드 'W-Robo' 10.31% NH증권-관텍 적극투자형 9.57%

국내외 증시 하락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RA)'가 두자릿수 수익률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종목 구성을 넘어 연금, 랩 상품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준다. 1년 6개월간의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해야만 자산관

〈주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수익률〉

(11월 3일 기준)

알고리즘명	업체명	6개월 수익률
W Robo 글로벌자산배분	에프앤가이드	10.32%
NH-관텍 미국주식형 현금여유기업	NH투자증권	9.57%
디셈버 미국 주식 솔루션	디셈버캐피탈	9.48%
키우GO 자산배분형(해외ETF, 달러)	키움증권	8.94%
키우GO 멀티전략형(혼합자산, 달러)	키움증권	8.88%
QV 글로벌 자산배분	NH투자증권	8.82%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

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3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계약자수는 43만 8500명, 운용자산 규모는 1조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알고리즘의 수익률도 국내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6개월 수익률 기준 테스트베드를 통과해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알고리즘 중에선 에프앤가이드의 'W-Robo글로벌자산배분'의 수익률이 10.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알고리즘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전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투자자산은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REITs), 상품(Commodity) 등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기간 코스

피 지수는 13.02%, 코스닥 지수는 22.97% 하락했다.

이어 NH투자증권과 관텍이 운영하는 적극투자형 'NH-관텍 미국주식형 현금여유기업'의 수익률이 9.57%로 뒤를 이었다. 이 알고리즘은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에 상장된 대형주 종목을 퀀트 기반 데이터로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 밖에도 ▲디셈버 미국 주식 솔루션 9.48% ▲키우GO 자산배분형(해외ETF, 달러) 8.94% ▲키우GO 멀티전략형(혼합자산, 달러) 8.88% ▲QV 글로벌 자산배분 8.82% 등이 뒤를 이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종목 구성 알고리즘 개발을 넘어서 연금, 랩 서비스로 활용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다.

KB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기업 파운더와 손을 잡고 자문형 연금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은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으로 미국 주식시장 지수의 장기 성장을 추종하고, 30%이하는 마켓타이밍에 따른 대응을 통해 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 운용으로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ETF를 활용해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관텍 QX G-EMP 자문형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평소 미국에 상장된 ETF를 활용해 주식, 채권, 리츠,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다가 자체 위험관리 알고리즘인 QX 시그널을 활용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도 출시됐다. 삼성증권은 펀드와 ETF 상품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굴림과 국내주식 개별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주식굴림을 운영 중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국내 유일 반도체 테스트 부품 일괄 공급

### IPO 간담회

#### 티에프이

부품별 유기적 연결로 수출 ↑ 3년간 평균매출 성장률 34.4%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공정 관련 '토탈 솔루션' 공급기업인 티에프이(TFE)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3일 티에프이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성장 전략에 대해 밝혔다.

반도체 고집적화에 따라 칩 성능에 대한 테스트 공정 중요도가 높아진다. 티에프이는 이러한 테스트 공정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다.

문성주 티에프이 대표는 "티에프이는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번인 보드, COK(Change Ove Kit) 등을 일괄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며 "경쟁사들도 저희와 같은 라인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일 문성주 티에프이 대표가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설명을 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티에프이의 핵심 경쟁력인 토탈 솔루션은 부품별 유기적 연결이 용이해 수출이 높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각각의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부품별 연결 정확도나 조율에 한계가 있었다. 티에프이는 지난 2010년부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2019년 일본의 JMT사 인수를 통해 역량 강화를 이어왔다.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4.4%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 332억원, 영업이익 54억원이다.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분야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올해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표는 "자금이 확보되면 해외 시장에 집중해 메모리를 뛰어넘어 비메모리 분야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5년에는 매출 가운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플랜을 준비 중이다. IPO 자금을 통해 연구·개발(R&D) 인원을 추가하고 새로운 라인업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에프이의 총공모주식수는 270만주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9000~1만 500원이다. 11월 3~4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할 후 8~9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상장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며, 11월 중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박미경 기자

## 빙하기 IPO시장... 중소형업체 꿈틀

이달에만 10개 이상 업체 수요예측 대부분 시총 3000억 미만 중소형사

미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얼어붙은 기업공개(IPO) 시장이 중소형업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대어로 꼽힌 대형업체들이 잇달아 상장을 연기 및 취소한 반면 중소형업체들이 앞다투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개 이상의 중소형 업체들이 증시에 입성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티쓰리엔터테이먼트를 시작으로 유비온, 티에프이, 엔젯, 밀리의서재, 제이오, 인벤티지랩, 펠트론, 바이오인프라,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이먼트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시총 30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들이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이먼트는 지난 1일과 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총 공모 주식은 1700만주로 공모 희망가는 1500~1700원이다.

에듀테크 업체인 유비온은 지난 2일부터 3일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이 진행됐으며 오는 8~9일에 일반청약을 할 예정이다. 총 공모 주식수는 276만주로, 공모가 희망 범위는 1800~2000원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엔젯은 오는 3~4일에, 이차전지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CNT) 업체인 제이오는 오는 4~7일에 각각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전자책 플랫폼업체인 밀리의서재는 오는 11월 4~7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할 예정이다. 총 공모 주식수는 200만주이며, 공모가 희망 범

위는 2만1500~2만5000원이다.

인벤티지랩, 펠트론은 각각 오는 7~9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바이오인프라,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이먼트 등도 각각 16~18일에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낮은 공모가로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상장 후 기업 가치를 찾아 반등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연말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 중에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은 연말 성수기 기업 수는 많아지고 공모가는 안정돼 낮은 공모가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좋은 투자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CJ올리브영 등 하반기 대어급은 상장 연기·철회 인플레이 우려에 금리상승 등 영향

반면에 대어들은 하반기에도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했다. 하반기 대어로 꼽혔던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을 철회했으며 CJ올리브영과 SSG닷컴은 상장 계획을 미뤘다. 예상 시총이 2조원을 넘어서는 바이오노트 또한 이달 7일 수요예측을 거쳐 IPO를 진행하려 했으나 다음 달로 연기했다.

유경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IPO 시장의 부진은 인플레이션 위험 확대와 금리 상승이라는 매크로 변수가 주된 원인"이라며 "금리 상승은 공모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상장 예정 기업과 IPO 주관사가 공모가 밴드 하향, 공모액 축소, 기존 투자자 보호 예수 비율 증가 등 공모조건을 공모 투자자에 더 유리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MSCI 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일 서울 사무소에서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지수사업, 파생상품, ESG 사업 등 전략위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 이사장은 "지난해 기후변화지수 공동개발 등 MSCI와의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역량을 보유한 MSCI와 지수개발, ESG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는 MSCI의 저탄소 전환점수를 기초로 ETF를 개발해 이후 10월에 10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6종을 상장한



3일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손병두(왼쪽)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이 홍보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등과 합

계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ID 제도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외국인 투자자 걸림돌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기회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회장은 "앞으로도 지수개발, ESG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글로벌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의 노력으로 한국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영석 기자 ysl@